

5·18민주화운동 45주기 민주묘지 가보니

“오월정신 지켜낼게요”... 참배객 추모 행렬

지역·세대 뛰어넘어 헌화·분향... 오월영령 ‘넋’ 기려
“권력 총부리에 희생... 헌법전문 수록·민주투사 기억”

“봄바람에 실려 온 5·18의 향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열흘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오월영령을 기리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타 지역 시민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추모객들이 민주묘지를 찾았다.

묘지 입구에는 추모의 글이 적힌 다양한 색의 리본 수백 개가 곳곳에 묶여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민주의 문 앞에 선 이들은 “승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래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뜻을 이어가겠다” 등의 문구를 방명록에 남기며 추모했다.

이어 헌화와 분향을 한 참배객들은 민주묘지 곳곳을 둘러보며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연휴를 맞아 자녀들과 함께 묘지를 찾

픽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묘비에 적힌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민주투사들을 기억했다.

묘지에 들어서기 전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던 아이들도 엄숙한 분위기에 진지한 모습으로 부모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에게 ‘5·18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민주묘지를 찾은 김응석씨(59)는 “12·3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관심 속에서 오월 정신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춘의 꽃도 못 피우고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투사들의 넋과 희생을 통해 지킨 민주화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안치된 유영봉안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12일 앞둔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들의 사진을 보며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 등의 말을 내뱉기도 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오월 정신이 제조명 받으면서 민주화의 현장을 찾아 났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날 아내와 함께 광주를 처음으로 찾은 부산시민 편동준씨(56)는 ‘광주에 오면 당연히 민주묘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곳을 방문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민주투사들의 희생과 아픔을 달랬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오월 영령의 넋과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편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무고한 시민들이 권력의 총부리에 희생된 너무 슬픈 일이다”며 “광주를 첫 방문하는데 목숨을 바쳐 항쟁한 이들이 안치돼 있는 민주묘지를 꼭 봐보고 싶었다”고 전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오월 정신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오월 영령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에서도 편히 쉬시길 바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희생이 헌법 전문에도 수록돼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덕수, ‘광주사태’ 표현 국민에 공개 사과해야”

광주 오월단체 “5·18 왜곡... 민주주의 모욕” 비난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표현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부른 한덕수 후보, 내란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이 이미 확정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전직 국회의원에

모임인 현정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쓴 표현이지만, 진상규명 작업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리면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다.

단체는 “평소 5·18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 와서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기 위해 기억의 현장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고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오른 인물로, 현정을 파괴한 내란세력의 통치 질서

에 복무했던 인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력이 있음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의식조차 없이,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입에 올린 것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한 예비후보에 진정성 있는 참회와 공개 사과를 비롯해 5·18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관련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5·18민주화운동을 자주 ‘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며 부끄러움이 밀려온다”며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사람’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대표 등 고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를 고소했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자인·고 최미애씨의 유가족이 허경(스카이데일리 기자), 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 스카이데일리(인터넷신문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회

손죄(형법 제308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숨진 조씨와 최씨의 사망 경위를 왜곡한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5·18 당시 조씨와 최씨가 북한 특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왜곡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라는 주장, 배주

대낮에 온 시민이 목격한 국가폭력을 또 다시 증명하라는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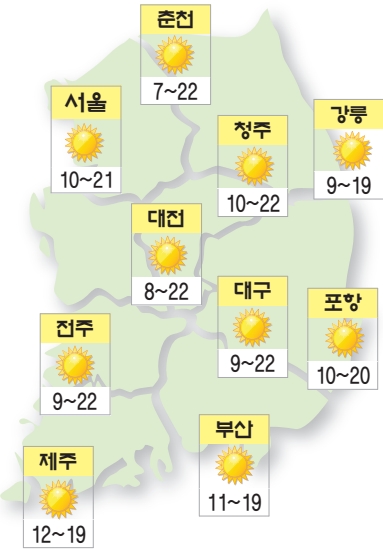
한편,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SOCIETY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36 달출 14:29
예전 19:23 달진 02:50



광주		10~22
목포		10~19
여수		12~18
순천		10~22
구례		9~23
광주		8~21
임도		10~22
흑산도		11~17
고흥		9~21
진도		10~19

목포	미물(고)	10:43 / 23:16
	셀물(저)	03:30 / 16:18
여수	미물(고)	05:49 / 18:29
	셀물(저)	12:13 / --:--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유지

만년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핑계로 복무를 이탈한 20대에게 유지 판결이 내려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2024년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 해당 기간 텔레그램을 통해 7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투약한 혐의도 적용.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관련 법령 횡수가 적지 않다”며 “병역법 위반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오월광주’ 나눈다... 17~18일 빵 10% 할인

광주시-대한제국협회 ‘오월광주 나눔 세일’ 협약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월광주 나눔세일’을 펼친다.

주먹밥 나눔으로 대동세상을 실현했던 ‘5·18 정신’을 이어가고자 광주, 전남·북

제과점 49곳이 나눔세일에 동참. 17~18일 이틀간 빵 10% 할인에 나선다.

광주시와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5 오월광주 나눔세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오월광주 나눔세일’은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전남·전북 일부지역 49개 제과점에서 제과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나눔세일에는 지역의 유명 제과점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

아은 골목빵집까지 다수가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 5·18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업체는 총 49곳으로 광주 동구(9곳)는 궁전제과 월남점, 궁전제과 충장점, 베비에르 롯데백화점광주점, 베비에르 문화의전당점, 프렌드 베이커리(동명동), 윤슬 베이커리(동명동), 엄마네 빵집(대인동), 두겹 베이커리(서석동), 샹젤레방 베이커리(학동) 등이다.

서구는 7곳으로 궁전제과 염주점, 베비에르 풍암점, 베비에르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 브레드 세븐 상무점, 에포르

광(풍암동), 페이스과자점(풍암동), 그랑팔레과자점(쌍촌동) 등이다.

남구(6곳)는 궁전제과 진원점, 베비에르 봉선점, 안테르센과자점(월산동), 팡스베이커리(마켓올레내), 행복한빵집(진월동), 주&주베이커리(임암동) 등이다.

북구(14곳)는 궁전제과 운암점, 궁전제과 두암점, 브레드 세븐 본촌점, 브레드 세븐 일곡점, 브레드 세븐 두암점, 행복한 빵집(매곡동), 파파레브(신용동), 파블로베이커리(운암동), 김경오 빵집(중흥동), 팡드베이커리(신용동), 빵이 가득한집(운암동), 프린스제과(운암

동), 브레드 아홉(일곡동), 에팡(매곡동) 등이다.

광산구(8곳)는 궁전제과 수원점, 엠블 베이커리(소촌동), 오소수(장덕동), 캄스베이커리(송정동), 피낭시에(송정동), 캔터베리베이커리(대양식자재마트), 힐트베이커리(수원동), 정영권 베이커리(소촌동) 등이다.

전남·전북은 5곳으로 베비에르 담양점, 베비에르 롯데아울렛 남양점, 베비에르 I.F.S캐어 광양점, 베비에르 르조뮤네점, 베비에르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